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 나 리

국문초록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 나 리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의 장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수명의 양적 측면보다, 어떻게 사는가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사별 인구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별은 중·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불가피한 생애사건인 동시에, 남겨진 사별자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다. 남겨진 사별자의 지속되는 삶에 대한 적응과 안녕을 어떻게 도모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수명의 질적인 측면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 인구의 증가로 노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동시에 사별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년기 독립적인 삶의 영위에 결정적인 인지기능은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건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고찰한 결과, 사별이 사별자로 하여금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등을 갖게 해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었던 배우자의 부재를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들로 대체함으로써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별 관련 연구가 부

족하고,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본 연구 역시 드물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에 있어서도, 특정 조건 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작동하는 기제를 살펴본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1)중·노년기의 사별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2)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사회적 상호작용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별자의 인지기능 수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개입지점을 찾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 사별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1)참여하는 사회활동의 개수, (2)사회활동 참여빈도, (3)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접촉빈도, 그리고 (4)가족 이외 인간관계와의 접촉빈도의 4가지 변수로 측정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양적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5차(2014년) 기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결과 및 해석에서의 혼란을 막고 사별에 따른 배우자 유무에 초점을 두고자 이혼이나 별거, 독신 등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만 53세에서 97세의 사별자 622명, 유배우자 1,495명으로 총 2,117명이었다. 자료의 빈도 및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대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중·노년기 사별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인지기능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별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 사회활동 참여빈도, 자녀 접촉빈도는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 이외 인간관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풍부한 연구 결과의 도출과, 깊은 연구 결과의 해석하기 위해 FGI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함께 실시하였다. FGI 면담은 총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충청북도 ○○시에 거주하고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만 65세 미만의 중년층이 2명,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 연구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사별로 인한 충격으로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등의 인지기능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분을 전환시키고 잡념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였다. 사회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활력을 얻게 하며 혼자 된 삶을 잊도록 하며,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자신이 심적으로 돌봄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 이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는데,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공감 받는 느낌으로 위안을 얻는다는 연구 참여자가 있는 한편,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참여자도 존재했다.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실천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기능 뿐 아니라 사별이 사별자에게 미치는 여러 영향들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별자의 인지기능 단순히 노화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 사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별자가 사별이란 생애사건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이차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프로그램 개발될 필요가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개수가 많을수록 사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지기능이 보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종류를 당사자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별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별자 이해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녀들과의 꾸준한 만남과 연락이 사별자의 지속되는 삶에 보호적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러한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별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병원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어 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많은 사별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과 기반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인지기능, 사별, 사회적 상호작용, 적응유연성 모형

학번: 2014-22326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문제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중·노년기의 사별과 인지기능	5
1. 중·노년기의 인지기능	5
2. 중·노년기의 사별과 인지기능	7
제2절. 적응유연성 모형(Resilience Model)	11
제3절.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13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의	13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14
제4절. 중·노년기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18
제5절. 기존 연구의 한계	20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22
제1절. 연구문제 및 가설	22
제2절. 연구모형	23
제4장. 연구 방법	24
제1절. 자료 및 변수 측정	24
1. 양적연구	24
2) 변수의 측정	25
2. 질적연구	30
제2절. 분석 방법	33
1. 양적연구	33
2. 질적연구	34

제5장. 양적 연구 결과	35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39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9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40
제3절. 가설검증	44
1.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44
2.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47
제6장. 질적 연구 결과	51
1. 연구 참여자	51
2. 연구결과	51
제7장. 논의 및 결론	5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57
1. 양적 연구결과 요약	57
2. 질적 연구결과 요약	60
제2절. 연구결과 논의	62
1.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62
2.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63
제3절. 연구의 함의	66
1. 이론적 함의	66
2. 실천적 함의	67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69
참고문헌	71
부록: 측정도구	86
Abstract	103

<표 차례>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29
표 2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40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43
표 5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46
표 6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50
표 7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1
표 8 연구 가설 지지 및 기각여부	59
표 9 FGI 자료 분석 내용	61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모형	23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별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러운 생애사건으로, 남겨진 자에게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준다. 사별자는 인생을 함께해 온 동반자를 상실한 슬픔을 다 비워내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삶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으며(Lopata, 1996), 변화된 삶에 사별자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이차적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손의성, 2007). 그러한 이차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지기능의 저하(Feng et al., 2014; Håkansson et al., 2009; Ward, Mathias, & Hitchings, 2007; Xavier et al., 2002)이다.

인지기능의 건강한 유지는 성공적 노화요건 중의 하나로(김호영, 2015; Rowe & Kahn, 1988),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능력의 중요 결정 요인(Seeman, Lusignolo, Albert & Berkman, 2001)이기 때문에 사별자의 삶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인지기능 관련 연구에 있어 중년기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인지기능의 저하가 갱년기로 인한 성 호르몬의 변화 등(김성엽, 기백석, 남범우, 이상훈, 2000)으로 인해 중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 중년 사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이윤석, 2012), 중년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배우자가 갖는 정서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Mineau, Smith & Bean, 2002), 그로 인한 상실과 디스트레스의 크기도 더욱 클 수 있다. 때문에 비단 노년 뿐 아니라 중년의 인지기능 관련 연구도 함께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사별 스트레스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꾸준히 보고해 오고 있으며(Feng et al., 2014; Håkansson et al., 2009; Ward, Mathias, & Hitchings, 2007; Xavier et al., 2002), 사별자의 경우 유배우자에 비해 이름 대기(naming), 단기 기억력(Xavier et al., 2002; 백옥미, 2013), 단어 회상력, 단어 재인, 언어유창성, 계산능력, 주

관적 기억력(손지현, 한덕현, 기백석, 2013). 및 집중력 등(손지현, 한덕현, 기백석, 2013; 정형수, 이지영, 김소연, 양은주, 2014) 전반적인 인지저하를 겪는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별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인지기능 저하 최소화의 대안으로 많은 학자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제시해왔는데(황종남, 권순만, 2009; James, Wilson, Barnes & Bennett, 2011), 사별자의 적응유연성은 노인의 내재적 특성보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Wilks & Croom, 2008). 사별 후,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었던 배우자의 빈자리를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에는 박탈감이나 외로움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차승은, 2007).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망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교류가 원활할 경우에는 사별로 인한 상실의 공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Goldman, Korenma, & Weinstein, 1995). 또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망은 사별자에게 유사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2011; House, Landis & Umberson, 1988; Umberson & Williams, 1999), 지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김호영, 2015), 사별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에 저항하게 하는 힘을 길러준다(Hultsch, Hammer & Small, 1993; Stern, 2012).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별 애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고, 고독감, 우울(Utz et al., 2002) 및 인지기능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별자와 비사별자 간 건강 격차의 상당 부분을 해소한다(차승은, 2007).

이처럼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여러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통합 정도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측면들로, 관계의 유무나 수 등의 객관적 특성과 일상 속에서 개개인들 간에 이뤄지는 다양한 교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손종미, 변상해, 2015).

전술한 대로 불가피한 노년기 생애사건인 사별이 인지기능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별 노인 관련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김태현, 한혜신, 1996; 최영아, 이정덕, 2000; 손의성, 2007; 정은주, 최기홍, 2013). 더불어 노년기 결혼지위를 독립변수로, 건강을 종속변수로 한 국내 연구 대부분이 종속변수를 신체적 건강으로 하였으며, 정신 건강을 다룬 경우에도 대부분 우울감을 기준(손정연, 2011)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종속변수가 한정되어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인지기능에 보호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사별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의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 기관에 소속된 노인들로 한정(손종미, 변상해, 2015)되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망이 스트레스 사건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중·노년기의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 효과를 적응유연성 모델(Resilience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기대어 본 연구는 중·노년기의 사별이 인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중·노년기 사별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본 논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중·노년기의 사별과 인지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을 한 후, 이론적 근거가 되는 적응 유연성 모형(Resilience Model)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보호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조절효과에 대하여 정리하고,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노년기의 생애사건인 사별과 함께 통제변수로 적용될 다른 변수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제시한 후,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가설과 모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5장과 6장에서는 각각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중·노년기의 사별과 인지기능

1. 중·노년기의 인지기능

건강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노화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김호영, 2015; Rowe & Kahn, 1988).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기능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표현방법이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하게 내려지고 있다.

우선, Lezak(1995)은 인지기능이 사고나 감지의 대상을 느끼고 생각하며 기억하는 기능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억과 학습기능, 정보를 조직·재조직 하는 사고기능, 정보를 의사소통하거나 행위하는 표현기능을 포함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Wheatley(1995; 2001)는 인지기능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알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복잡한 사고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집중력, 기억력, 기획력, 조직력, 문제해결 능력의 다섯 영역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리고 Murray, Heulskotter와 O'Driscoll(1980)은 충동, 흥미, 지각, 기억, 동기, 사고, 논리, 문제해결, 학습, 판단과 같은 지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또한 Najenson과 동료들(1984)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지기능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얻는 정보를 분류하고 기억하며, 이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상황마다 적절히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의 진전에 따라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년기에 그 저하가 두드러져, 기존 연구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 온 측면이 있다¹⁾. 그러나 노화가 단순히 노년기

1)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News(2012.01.30.) "Even

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기 이외에도 인지기능의 저하는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어떤 지적기능은 성인 초기에 저하되기도 하며, 대부분은 중년기나 사십대 후반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송민옥, 2006). 영국의 Singh-Manoux와 동료들(2012)은 노년기에 집중되었던 인지저하의 이슈가 중년기에서도 확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0년간 45세~70세의 7400명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단기 언어 기억, 어휘력, 계산능력 등을 측정한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단 노년층 뿐 아니라 중년기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인지저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50세 이후(Albert & Heaton, 1988) 또는 55-60세가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기준 연령이라고(Ronnlund, et al., 2005) 이야기 하고 있어 더 이상 인지저하가 노년기만의 이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중년기 갱년기 또는 폐경기로 인한 성 호르몬의 변화는 인지저하와 연관성을 갖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하여 중년기에 집중력이나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엽, 기백석, 남범우, 이상훈, 2000), 그리고 남성 역시 갱년기로 인해 인지능력의 감퇴가 심해져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인지능력의 감소가 나타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새로운 길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²⁾. 게다가 준고령자 또는 젊은 노인인 베이비붐 집단의 경우, 이전 노인집단과 달리 애정과 친밀감을 기본으로 배우자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Mineau, Smith & Bean, 2002), 배우자 상실로 인한 공백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한 디스트레스 역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중년 사별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이윤석, 2012), 젊은 노인일수록 배우자의 상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Middle-aged Adults Experience Cognitive Decline, Says Study"
2) 삼성서울병원(n.d.).남성 갱년기 클리닉.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edical/healthSub01View.do?content_id=471&DP_CODE=URO&MENU_ID=003038&ds_code=D0003793&main_content_id=471. 2016년 5월 7일 검색.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손정연, 한경혜, 2012), 중년기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2. 중·노년기의 사별과 인지기능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중·노년기는 신체적, 생물학적 노화의 시작과 함께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이다(백옥미, 2013). 배우자는 노인에게 중요한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건강에 대한 조언을 통해 건강증진 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Umberson, Wortman & Kessler, 1992),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나누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존재이다(이윤석, 2012). 때문에 배우자 사별은 노년기에 주로 겪는 자연스러운 생애 사건이기도 하지만(Lieberman & Peskin, 1992), 슬픔이나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차원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Thompson et al., 1991), 면역체계 손상(Bartrop et al., 1977), 조기 사망률의 증가 등(이윤주, 조계화, 이현지, 2007) 개인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Lieberman & Peskin, 1992). 게다가 사별 이후 남겨진 배우자는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배우자로서의 역할 대신 독신 생활로의 조정 등,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Lopata, 1996),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차적인 삶의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한다(손의성, 2007). 이처럼 노년기의 사별은 단지 애착의 대상이자 인생의 반려자를 잃어버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Lopata, 1996).

사별 후 나타나게 되는 여러 이차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지기능의 저하인데, 인지기능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Seeman, Lusignolo, Albert & Berkman, 2001). 연구자들마다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대해 조금씩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건강한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김호영, 2015; Rowe & Kahn, 1988). 성공적 노화 요건 중 하나인 인지기능의 저하는 노년기의 삶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의 이슈일 뿐 아니라, 부양부담 및 의료비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반하는 사회적 차원의 이슈이기도 하다(전해숙, 2013). 때문에 사별로 인해 야기되는 인지저하의 이슈에 관심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은 기억력의 감퇴 등 유배우자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며(Xavier et al., 2002; 백옥미, 2013), 중년기에 사별을 경험한 경우, 비사별자에 비해 향후 노년기에 접어들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지 저하가 나타난다(Håkansson et al., 2009). 불가피한 생애 사건인 사별이 남겨진 배우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성공적인 노화와 홀로 된 삶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별 노인의 경우 혼인유지 노인에 비해 단기 기억력(Xavier et al., 2002; 백옥미, 2013), 이름 대기(naming), 단어 회상력, 단어 재인, 언어 유창성, 계산능력, 주관적 기억력(손지현, 한덕현, 기백석, 2013). 및 집중력(손지현, 한덕현, 기백석, 2013; 정형수, 이지영, 김소연, 양은주, 2014)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다 낮게 나타난다. 또한 여성 사별 노인의 경우에는 지남력(손지현, 한덕현, 기백석, 2013)이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별 이후 인지기능의 저하가 집중력이나 기억력 등의 어느 한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의 경험이 왜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지는 걸까?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왔지만(Feng et al., 2014; Håkansson et al., 2009; Ward, Mathias, & Hitchings, 2007; Xavier et al., 2002), 어떤 과정을 통해 사별이라는 스트레스적인 생애사건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사별 후 나타나는 주요 정서적 반응 중 하나인 우울이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적인 생애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Eriksson, Mellstrom & Svanborg 1987),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들은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한다(APA, 1994). 스트레스적 생애사건 경험 후 우울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지적 수행(Intellectual performance)을 자신감 있게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Khan, Zarit, Hilbert & Niederche, 1975; Zarit, Gallagher & Kramer, 1981). 우울은 사별 후 갖게 되는 여러 정서적 반응의 집합체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데, 손의성(2008)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외로움, 대화 상실 및 정신적 의지 상실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백옥미, 2013)에서는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별 상태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사별의 슬픔 자체가 인지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보다,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Ward, Mathias, & Hitchings, 2007)될 만큼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우울 뿐 아니라 외로움 역시 사별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배우자 사별 후 갖게 되는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의 수준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코티졸이 지속될 경우에는 뇌 세포가 손상이 야기된다(Boss, Kang & Branson, 2015).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배우자 상실 후 갖게 되는 외로움이 전반적인 인지능력, 기억력, 정보처리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ss, Kang, & Branson, 2015).

또한 사별 이후 갖게 되는 우울, 비탄, 그리고 외로움 등의 상황은 남겨진 배우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건강상태가 취약해지게 하는데(Parkes, 1964; Stein & Susser, 1969; Parkes, 1975; Mor, McHorney & Sherwood, 1986), 이 점이 개인의 지적 능력에까지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지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Grimby & Berg, 1995)이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제2절. 적응유연성 모형(Resilience Model)

노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배우자 사별이라는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별자가 노년기 발달단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보호요인의 특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Schoon & Bynner, 2003; Hardy et al., 2004; Rossi & Bisconti, 2007, Wallace et al., 2001). 이는, 설사 배우자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나 부정적 변화 자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사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잃기 쉬운 기능수준의 회복에 필요한 개인적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Rossi & Bisconti, 2007).

위험한 환경의 피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적응유연성의 개념은 적용되어왔다(Rutter, 1987). 최근에는 과거의 전통적 병리학적 또는 위험 모델에 기반을 둔 접근에서, 위험상황 가운데 성공적 적응을 살피는 연구 경향이 나타나면서 적응유연성 모형(resilience model)이 이러한 연구들에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최창용, 2014).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복원력 또는 탄성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전의 모형과 크기로 되돌아가는 물질의 유연함으로 사전적 정의된다(Dyer & McGuinness, 1996). Walsh(2002)는 적응유연성을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단단해지고 자원을 더욱 풍부히 하는 능력이며, 위기를 도전으로 인내하고, 성장하고 자정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Kaplan과 동료들(1996)은 주요 인생 스트레스 요인을 직면하는 가운데에서 만족스러운 기능 유지를 위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Egeland와 동료들(1993)은 매우 위험한 상황, 만성적 스트레스 또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트라우마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성공적인 적응력, 긍정적 기능 또는 유능성에 대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적응유연성에 대한 정의의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어떤 역경이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적응유연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제시하는데(Masten,

2001), 우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부정적 발달이 나타날 정도의 위험이 존재해야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위험이나 스트레스 가운데에서도 긍정적 발달 산물을 보이거나, 적응의 질이 좋아야 한다. 적응유연성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위험 상황이란 빈곤, 장애, 질병 등이 있으며, 사별 또한 주로 다루어지는 위험 상황 가운데 하나이다(Haggerty et al., 1994). 또한 노인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지적인 대인관계(Hardy et al., 2004; Hildon et al., 2009)나 사회적 자원들(Hardy et al., 2004; Hildon et al., 2009)과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별의 상황은 사별자에게 여러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그리고 인지기능에 악영향을 야기하는 부정적 발달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떠나간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사별자의 인지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노년기 발달과정으로의 적응을 돕기 때문에 적응유연성 모형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중·노년기 사별이라는 생애 위험사건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보호요인을 통해 남겨진 삶에 적응하고, 노년기 발달을 이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3절.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통합 정도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측면들로, 일상 속에서 개개인들 간에 이뤄지는 다양한 교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손종미, 변상해, 2015).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접촉으로 이뤄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여기에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 그리고 공식적 지원자 등 다양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Ell, 1994). 한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이라고도 표현되며,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연결을 의미한다(김미령 2005; Cohen & Syme 1985)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개인이 어떤 사물, 사람 또는 실체(entities)들과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평평, 정용길, 2012). 표현에 차이가 존재하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아우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술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호 교환적이고, 양방향적이며,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과 지지, 그리고 격려를 제공하도록 한다(손종미, 변상해, 2015).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적응유연성 기제를 작동시키고(Kawachi & Berkman, 2001), 사별자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손종미, 변상해, 2015).

사회적 상호작용망(interactive network)의 측정은 망 내 구성원들과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빈번하게 상호작용했는지를 통해 이뤄진다(Milardo, 1988).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원이 개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측면을 지닌다(김윤정, 2008). 일반적으로 결혼 상태나 다

른 사람과의 동거여부 등(Wills, 1985)처럼 단순히 사회적 관계의 존재 유무나 사회적 관계의 수(김윤정, 2008)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 또는 크기라고 하는 상호작용망 내 구성원의 수(Ell, 1984; Litwin, 2001), 구성원 간 접촉빈도(Ell, 1984; Litwin, 2001), 상호작용망 내에서 교환되는 자원의 수(사회적 지지연구회, 2002) 등으로 한다. 앞선 측정 항목들에 덧붙여 최근 연구들에서는 종교모임, 여가활동, 지역사회모임 등의 사회활동들과의 관계 및 참석여부 등(Litwin & Shiovitz-Ezra, 2011)으로 그 측정변수를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속에 대한 설명과 효과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사회적 지지연구회, 2002). 또한 주관적 평가가 덜 반영된 객관적 지표라고 인식되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허선영, 2003).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여겨지며(김기태, 박미진, 2005; Wilks & Spivey, 2010), 많은 학자들이 배우자 사별의 경험이 인지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제시해왔다(황종남, 권순만, 2009; James, Wilson, Barnes & Bennett, 2011).

결혼관계가 종결된 이후 주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었던 배우자의 빈자리를 다른 사회적 관계들로 대신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박탈감이나 외로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차승은, 2007). 이는 결혼한 노인들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나 외로움의 느낌을 덜 느끼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데(Feng et al., 2014) 반해, 사별 노인의 경우 사별로 인한 애도로 심리적 스트레스에는 노출되어 있고 배우자의 부재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은 전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취약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신 또는 신체 건

강의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Seeman, 1996). 이처럼 제한된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s)은 인지기능 저하 발생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있다(Green, Rebok & Lyketos, 2008).

그러나 사별로 인해 배우자라는 주요 사회적 관계를 상실한 이후에도, 이를 대체할 사회적 상호작용망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그 안의 교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상실로 인한 공백이 크지 않을 수 있다(Goldman, Korenma, & Weinstein, 1995). 사회적 상호작용망의 크기(Barnes, Mendes de Leon, Wilson, Bienias, & Evans, 2004; Holtzman et al., 2004)와 풍부함(Hakasson et al., 2009)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호적 역할을 하는 것(Crooks et al., 2008; Green, Rebok & Lyketos, 2008; Holtzman et al., 2004)은, 사회적 상호작용망의 크기가 클수록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갖게 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인지 자극이나 다른 기능들을 생산하는 잠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Holtzman et al., 2004).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에 배우자 사별 노인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녕감을 갖게 한다(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2011; House, Landis & Umberson, 1988; Umberson & Williams, 1999),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망 속에 위치한다는 소속감이나 책임감(Umberson, 1987)은 사별로 인한 이차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Brown, House, & Smith, 2006),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슬픔을 극복하게하고 고독감 및 우울을 완충한다(Utz et al., 2002). 이처럼 사별이 사별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족관계를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Lopata, 1993),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사별자와 비사별자의 건강 격차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차승은, 2007).

게다가 사회 활동을 통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대인관계의 다양한 요구 파악 및 조율 등, 개인에게 풍부한 지적 자극이 있는 환경과 생활방식을 야기함으로써 개인이 인지적 도전(cognitive challenge)을 경험하게 한다(김호영, 2015). 풍부한 인지적 자극의 제공을 통해 사별자의 인지저

하에 보호 작용을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개인마다 두뇌 용량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뇌 손상이 발생 시 각자의 대처능력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Stern, 2012). 뇌 손상 발생 시 대처능력의 개인차를 인지비축(cognitive reserve)라고 하는데, 인지비축은 개인의 인지기능의 발달을 촉진하고 뇌 손상에 저항하게 한다(Hultsch, Hammer & Small, 1993; Stern, 2012). 인지비축은 경험에 의해 평생 구축되는 것으로, 그 정도가 클수록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를 더 잘 완화된다(Stern, 2012).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과 경험들은 인지 비축을 생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Hultsch, Hammer & Small, 1993; Stern, 2012). 사회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도 관련이 있는데, Lupien과 동료들(2005)이 노인을 대상으로 코티졸의 수준의 측정을 통해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한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하여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ames와 동료들(2012)은 48-82세의 남성 348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도와 뇌 부피 간의 관계를 MRI를 통해 분석하여,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인지력이나 고차원의 인지과정 기능을 갖춘 회백질과 감각과 운동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뇌량의 부피가 더욱 크다는 과학적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별자가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별자의 적응유연성은 노인의 내재적 특성보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ilks & Croom, 2008),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별자의 대처자원으로서 사별 후 삶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황종남, 권순만, 2009; Bankoff, 1983)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적응유연성이 달라지는 것으로(Wallace, 1999) 선행연구들은 보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떤 차원들이 사별자의 인지저하

에 완충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망 내 구성원 수나 그들과의 접촉빈도로 측정되는 사회적 상호작용망의 크기는 그 크기가 클수록 노인의 인지 기능에 보호적 역할을 하며(Holtzman et al., 2004; Crooks et al., 2008; Green, Rebok & Lyketos, 2008), 작을수록 인지기능의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게끔 한다(Bassuk et al., 1999). 또한 자녀와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 노인의 건강(손정연, 한경혜, 2012)과 인지기능은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최희정, 민주홍, 2015). 이는 부모와 자녀가 자주 접촉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지지원으로 인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건강 증진효과를 얻게까지 하기 때문이다(송지은, Marks, 2006). 자녀 뿐 아니라 친인척, 친구를 만나는 횟수 역시 더 좋은 인지 수행을 예측하게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ratiglioni et al., 2000; Barnes, Mendes de Leon, Wilson, Bienias, & Evans, 2004; Green, Rebok & Lyketos, 2008), 종교활동(Barnes, Mendes de Leon, Wilson, Bienias, & Evans, 2004; Seeman, Lusignolo, Albert & Berkman, 2001)이나 여가활동(황종남, 권순만, 2008)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전해숙, 2013) 또한 인지기능의 저하에 보호적 역할을 한다.

제4절. 중·노년기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인지 기능의 저하 및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들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Albert et al., 1995)과 신체적·건강적 요인(Trojano et al., 2003)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연령(전해숙, 2013)이 있으며,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증하는 요인인 교육 역시 높은 인지기능을 유지하게끔 하여 인지 기능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Albert et al., 1995; Zelinski & Gilewski, 2003). 또한 수입(Lee, Burning, Cook & Grodstein 2006) 역시 인지기능과 관계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한다. 성별도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의 인지기능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이현주, 강상경, 2011; Ganguli et al., 2010)가 존재한다.

2) 신체적·정신적 건강 변수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변수로는 신체적 일상생활 수행행동(ADLs)과 수단적 일상생활행동(IADLs)가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 행동의 수행 정도를 나타낸다(최성재, 장인협, 2010).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해 일상생활기능과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ADL과 IADL의 기능 저하는 인지기능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희, 배화옥, 김운신, 2006).

한편 우울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술한대로 인지저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상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해왔으며(Barnes, Alexopoulos, Lopez, Williamson, & Yaffe, 2006), 우울한 노인의 인지기능은 우울하지 않은 노인의 인지기능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동

배, 이효정, 전흥진, 채수진, 조맹제, 2008).

제5절. 기존 연구의 한계

첫째, 노인의 결혼 상태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Helmer, 2009), 그 중 사별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생애사건인 동시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과 사별 이후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극복과제를 개인에게 요구한다(이민아,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별 노인과 관련 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김태현, 한혜신, 1996; 김진세 외, 1998; 2000; 박혜옥, 육성필, 2013; 최영아, 이정덕, 2000; 손익성, 2007; 정은주, 최기홍, 2013)이어서 중·노년기 이해를 위해 사별 관련 연구 자체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년학자인 Rowe와 Khan(1988)은 성공적 노화의 요건 중 하나로 높은 인지기능 수준의 유지를 제시하였으며, 노인들 스스로도 건강한 인지 기능 등의 심리적 요인을 자신들의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Jeste, Depp, & Vahia, 2010). 게다가 배우자 사별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보건복지부, 국립중앙치매센터, 2012)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신체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하여 사별의 영향을 살펴보았거나(김승희, 염영희, 2011), 정신건강을 다룬 경우에도 대부분 우울감을 기준(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2011; 남일성, 2015; 손정연, 2011)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종속변수가 한정되었고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셋째, 노년기 인지기능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보호적 역할과 관련 연구들이 새롭게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나(Kawachi & Berkman, 2001),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이라는 위험요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갖는 보호 작용을 알아보았다.

넷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별과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특히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조건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한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모델검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배지연, 2003).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별이라는 특정 조건에서 적응 유연성 모델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사별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함에 있어,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과 특정 기관에 소속된 대상으로 한정된 선행연구(손종미, 변상해, 2015)의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러 변수들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적응유연성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제1절.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2)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별 가설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 1. 중·노년기에 사별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2.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1) 사회 활동

<가설 2-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참여하는 사회 활동의 개수가 많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가설 2-2>.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활동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2) 자녀

<가설 2-3>.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3) 가족 이외 인간관계

<가설 2-4>.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족 이외 인간관계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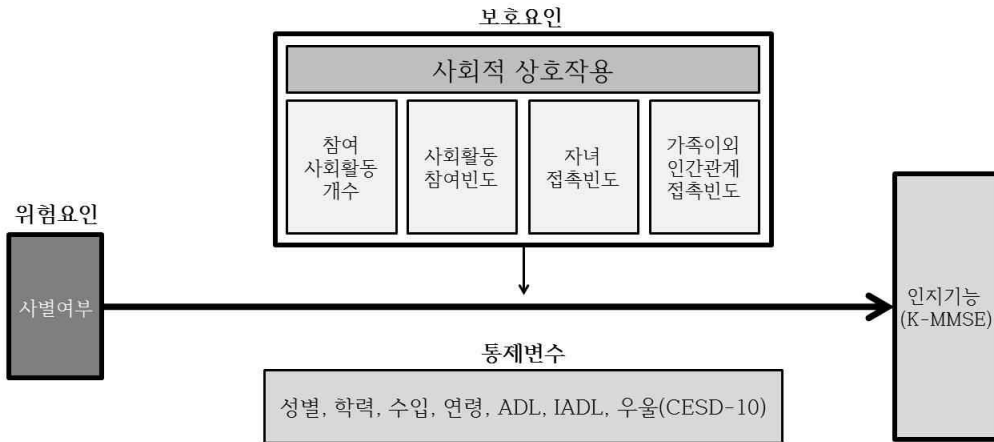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제4장. 연구 방법

제1절. 자료 및 변수 측정

1. 양적연구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다른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5차(2014년) 기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KLoSA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축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6). KLoSA의 모집단은 2006년 조사 시작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이며,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별 층화 및 할당 표집하였다. 1차(2006년) 조사에서 10,254명, 5차(2014년) 7,467명으로 추적조사 하였고, 1차 조사 대비 76.2%(2012년) 72.8%(2014년)의 원 표본 유지율을 보여 비교적 안정적인 표본 유지가 이뤄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6).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KLoSA를 선정한 이유는 전국 대표 표본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인지기능수준, 혼인상태와 중·노년기 인지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절변수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별에 따른 배우자 유무에 초점을 두었기에, 이혼이나 별거, 독신 등의 경우(3.2%)는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 및 해석에서의 혼란을 막고자 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인지 기능

인지기능은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로 측정하였다. K-MMSE는 주의 집중 및 계산, 기억등록, 기억회상, 언어기능, 지남력, 이해력 그리고 판단력 부분의 인지기능을 검사하는 도구로(박미정, 2011), 지남력, 주의 집중 및 계산, 기억력 테스트, 따라서 말하기, 소지품의 용도, 눈감고 읽기, 쓰기, 명령수행, 그리기 등 총 1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총점은 30점으로 23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Tombaugh & McIntyre, 1992),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이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2) 독립변수 : 사별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묻는 문항에 이혼, 별거 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제외하고 혼인유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 사별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로 코딩한다.

(3) 조절변수 : 사회적 관계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이를 측정하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분석 자료로 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수가 제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한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KLoSA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 사회활동 접촉빈도, 자녀 접촉빈도,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 접촉빈도의 4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4가지 변수 모두 측정시점은 응답할 당시이며, 각 변수들의 구체적인 측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참여 사회활동 개수: 원자료에서는 친목모임, 종교모임, 동창회/향우회

/종친회, 자원봉사모임, 여가/문화/스포츠단체모임(노인대학 등),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모임 등 7개의 사회활동 중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모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재코딩하고, 중복 응답한 개수를 연속변수로 활용한다.

② 사회활동 참여빈도: 친목모임, 종교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모임, 여가/문화/스포츠단체모임(노인대학 등),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모임 등 7개의 사회활동 항목에 대한 참여 빈도를 물어본 변수를 '0(거의 활동하지 않음)'에서부터 '9(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까지의 응답범주가 되도록 재코딩 한 후 각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를 모두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한다.

③ 자녀 접촉빈도: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자녀 중 현재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의 만남 및 전화, 편지, 전자 메일 등을 통한 연락 빈도가 얼마나 잦은지 묻는 문항으로, '0(만나지 않음)'에서부터 '9(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까지의 응답범주가 되도록 자녀 만남빈도와 자녀 연락빈도를 합산하여 자녀 접촉빈도로 활용한다.

④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 접촉빈도: 친구나 이웃 등 가족 이외 친밀 관계와 얼마나 만나는지 묻는 문항으로, '0(연락하며 지내지 않음)'에서부터 '9(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까지의 응답범주가 되도록 하여 이를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 접촉빈도로 사용한다.

(4) 통제변수

① 인구사회학적 변수

ㄱ. 성별: 남자는 0, 여자는 1로 재코딩한다.

ㄴ. 학력: 교육의 정도에 따라 재코딩 한 후(1=무학(문자해독 불가), 2=무학(문자해독 가능), 3=초등학교(보통학교), 4=중학교(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 5=고등학교(대입검정고시), 6=전문대학(사범학교), 7=대학교 8=대학원 석사, 9=대학원 박사), 1-9점을 부여한다.

ㄷ. 소득: 가구총소득을 로 나눈 균등화가구연소득을 사용하며,

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한 ln균등화가구연소득을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한다.

ㄴ. 연령: 2014에서 응답자의 출생년도를 뺀 값인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한다.

② 신체적·정신적 건강 변수

신체적 건강 변수는 일상생활활동(ADL),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으로 측정하였다.

일상생활활동(ADL)은 목욕/샤워, 세수/양치/머리감기, 식사,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방 밖으로 나가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은 몸단장하기, 식사준비하기, 집안일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빨래하기, 금전관리 하기, 전화사용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사기, 약 챙겨 먹기 등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원자료에서는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활동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0,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1,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2로 재코딩하여 그룹을 각각 ADL과 IADL의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ADL과 IADL 각각의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ADL과 IADL의 수행능력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전은영, 2006).

정신적 건강변수는 우울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KLoSA에서는 우울 측정 도구로 CESD-10(Irwin, et al., 1999)을 사용하여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대하여 총 10문항을 통해 질문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16). 원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은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인의 우울 수준과 임상적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Radloff, 1977). CESD-10은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이 10개로 간결해 졌으며,(Irwin, Artin & Oxman, 1999), KLoSA는 4점 척도로 우울을 측정한 후, 응답값을 '예(1)', '아니오(0)'로 변환한 후, 그 값이 1~10점 사이가 되도록 변환

한 변수를 제공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1). 본 연구에서는 CESD-10의 점수를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한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인지기능	K-MMSE (0~30: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낮음)
	독립변수	사별여부	사별=1, 혼인=0(ref.)
		성별	남성=1, 여성=0(ref.)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학력	1~9: 1=무학(문자해독 불가), 2=무학(문자해독 가능), 3=초등학교(보통학교), 4=중학교(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 5=고등학교(대입검정고시), 6=전문대학(사범학교), 7=대학교 8=대학원 석사, 9=대학원 박사
		수입	ln균등화가구연소득
		연령	53~97: 연속변수로 활용
	신체적 건강	일상생활활동(ADL)	0~14: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 수준이 낮음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0~20: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준이 낮음
	정신적 건강	우울수준	CESD-10 (0~10: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 높음)
조절변수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 사회활동 개수	0~7: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가 많음
		사회활동 참여빈도	0~63: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활동의 참여빈도가 높음
		자녀 접촉빈도	0~90: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음

2. 질적연구

1)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 및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깊은 연구 결과의 해석을 위해 FGI 기법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시행하였다. 비무선표집(non-random sampling)의 표집방법 가운데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한국성인교육학회, 1998)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눈덩이표집이란 몇몇의 적합한 응답자 집단과 접촉한 후, 이 응답자들을 통하여 비슷한 속성의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는 형태의 표집방법이다(고영복, 2000). 눈덩이표집은 주로 심층적이며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관하여 연구할 때 사용되며, 사별의 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영복, 2000).

이러한 표집전략에 입각하여 연구자는 중·노년기에 사별을 경험한 응답대상자를 찾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에게는 가벼운 사전 만남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라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을 최종적인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FGI 일정을 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노년기 사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며 동시에 중·노년기에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독자적 이해와 판단력, 그리고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별 이후 재혼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중·노년기 사별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FGI 기법의 실행을 위한 연구 참여자의 수는 학자마다 상이하게 제시되지만, 일반적으로 다루기 적절하다고 제시되는 참여자 수는 6명에서 10명 사이이다(Rabiee, 2004). 이는 다양한 관점을 모으기에 충분히 크며 무질서해지거나 분열되지 않을 만큼 작지 않은 수이기 때문이다(Rabiee,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역동의 발생과 동시에 주제의 논점에

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자, 6명과 10명의 중간인 8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로는 만 45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중년층(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과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제적인 연구수행 과정 및 동의과정

눈덩이표집을 통해 모아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얻고 면담 일정과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 일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서도, 나누는 대화소리가 서로에게 잘 들릴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의 공간을 대여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녹음을 통한 기록에 대한 동의 확인을 한 번 더 수행하였다. 녹음기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기록된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그대로 전사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으로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였다. 사회자인 연구 책임자가 일차적 자료분석에서 사용되는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의 K-MMSE(인지기능검사척도),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참여 사회활동 개수, 사회활동 참여빈도, 자녀 접촉빈도,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로 이뤄진 다)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설문 내용(설문내용의 기틀)을 준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이 상호 자유로운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참여자들 간의 라포형성과 함께 도입질문인 "사별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이후, 사별 이전에 비해 사별 이후 주의집중력, 기억 등록 및 회상능력, 계산능력 등의 인지능력에 변화가 있다고 느꼈는지에 대하여 물음으로써,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의견을 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한 경우,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자주 접촉하는 것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러한 사별 전후 인지기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다.

FGI는 통상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되며, 이러한 시간적 길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친목 관계를 확립할 뿐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감정, 신념 등의 깊이를 탐색하기 위해 필요하다(한선민, 2009). 본 연구에서도 소요시간으로 2시간을 예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제2절. 분석 방법

1. 양적연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사별여부, 사회적 상호작용, 인지기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중·노년기 사별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사별 스트레스로 인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사별자 집단과 유배우자 집단 간의 각 변수들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 그리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다.

넷째, 중·노년기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중·노년기의 사별 여부가 인지기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섯째, 중·노년기의 사별 여부와 인지기능수준의 관계에 있어 미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독립변수인 사별과 조절 변수인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들 간의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다중공선성을 예방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그리고 하나의 모형에 상호작용항 모두를 한꺼번에 투입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질적연구

FGI 기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해당 자료의 분석은 프레임워크 분석 방법(Krueger, R. A., 1994; Rabiee, F., 2004; Ritchie, J., & Spencer, L., 1994)을 통해 이뤄졌다. 우선 ①친숙화 단계로 녹음된 자료를 반복하며 듣고, 전사한 녹취록과 인터뷰 과정에서 기록한 관찰노트를 반복해서 읽었다. 이는 인터뷰의 세부적 내용까지 연구자가 익숙해짐으로서, 인터뷰를 세분화하기 이전 전체적 그림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주제들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②주제를 선정했다.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 등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적어나가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③각각의 사례 안에서 의미 있는 구절들을 정리, 강조, 그리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며, ④새롭게 형성된 주제에 따라 각 개념들을 적절히 재정리하는 범주화 과정을 가졌다. ⑤마지막으로 범주화한 개념들을 압축하고 줄여나가기 위해 비슷한 구절들은 자르고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 의미 있는 개념들을 추출해냄으로써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제5장. 양적 연구 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는 총 2,117명으로 이 가운데 사별하였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622명(29.4%), 유배우자라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1,495명(70.6%)이었다.

전체집단의 인지기능 평균점수는 25.09점이었고, 이 가운데 사별집단의 평균점수는 22.64점, 유배우자집단의 평균점수는 26.11점으로 유배우자집단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이러한 사별집단과 유배우자집단의 평균점수 차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처럼 사별 스트레스로 인한 것보다 더불어 집단의 연령차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집단의 평균연령은 약 68세이며, 사별집단의 경우 평균연령 약 73세로 평균연령이 약 65세인 유배우자집단보다 연령이 약 8살 높게 나타난다. 성별 분포의 경우, 전체집단은 남성이 736명(34.8%)으로 표집 되었으며 사별집단은 70명(11.3%), 유배우자집단은 666명(44.5%)이 남성이다.

전체집단의 학력을 살펴보면, 문자해독불가 무학이 71명(3.4%), 문자해독가능 무학이 20명(9.6%), 초등학교(보통학교)가 633명(29.9%), 중학교(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가 435명(20.5%), 고등학교(대입검정고시)가 577명(27.3%), 전문대학(사범대학)이 28명(1.3%), 대학교가 155명(7.3%), 대학원 석사가 14명(0.7%), 그리고 대학원 박사가 1명(0.0%)으로 연구대상자 가운데 초등학교(보통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사별집단의 경우에는 문자해독불가 무학이 51명(8.2%), 문자해독 가능 무학이 120명(19.3%), 초등학교(보통학교)가 257명(41.3%), 중학교(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가 94명(15.1%), 고등학교(대입검정고시)가 81명(13.0%), 전문대학(사범학교)이 1명(0.2%), 대학교가 17명(2.7%)이었고 대학원 석사가 1명(0.2%), 그리고 대학원 박사는 없었다. 한편, 유배우자집단의 경우 문자해

독불가 무학이 20명(1.3%), 문자해독 가능 무학이 83명(5.6%), 초등학교(보통학교)가 376명(25.2%), 중학교(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가 341명(22.8%), 고등학교(대입검정고시)가 486명(33.2%), 전문대학(사범학교)이 27명(1.8%), 대학교가 138명(9.2%), 대학원 석사가 13명(0.9%), 그리고 대학원 박사가 1명(0.1%)로 나타난다. 전체집단의 ADL와 IADL의 평균 지수는 각각 .04, .25로 나타났고, 사별집단은 각각 .1, .42, 유배우자집단은 각각 .02, .18로 나타나, 근소한 평균점수 차이이나, 사별집단에 비해 유배우자집단의 일상생활행동 수준은 더 낮고 및 도구적 생활행동의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체집단은 연간 1554.093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운데, 사별집단은 연 1171.065만원, 유배우자집단은 1713.4528만원의 소득이 있어 사별집단에 비해 유배우자집단의 평균연소득이 약 542만원 이상의 소득을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사별집단과 유배우자집단 간의 각 특성 차이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표 2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17)

		전체집단	사별자 (A)	유배우자 (B)	차이검정 (B-A)
N(%)		2,117 (100%)	622(29.4%)	1,495 (70.6%)	
인지기능(M/SD)		M=25.09 SD=4.342	M=22.64 SD=5.236	M=26.11 SD=3.431	10.113 ***
성별(%) 남성=1		736(34.8%)	70(11.3%)	666(44.5%)	214.697 ***
연령	연령(M/SD)	M=67.72 SD=9.02	M=73.32 SD=8.261	M=65.39 SD=8.269	20.118 ***
학력	문자해독불가 무학	71(3.4%)	51(8.2%)	20(1.3%)	302.751 ***
	문자해독가능 무학	203(9.6%)	120(19.3%)	83(5.6%)	
	초등학교 (보통학교)	633(29.9%)	257(41.3%)	376(25.2%)	
	중학교 (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	435(20.5%)	94(15.1%)	341(22.8%)	
	고등학교 (대입검정고시)	577(27.3%)	81(13.0%)	486(33.2%)	
	전문대학 (사범대학)	28(1.3%)	1(0.2%)	27(1.8%)	
	대학교	155(7.3%)	17(2.7%)	138(9.2%)	
	대학원 석사	14(0.7%)	1(0.2%)	13(0.9%)	

ADL(M/SD)		M=.04 SD=.469	M=.10 SD=.731	M=.02 SD=.296	3.506 ***
IADL(M/SD)		M=.25 SD=1.103	M=.42 SD=1.550	M=.18 SD=.842	4.628 ***
우울(M/SD)		M=2.86 SD=2.594	M=3.72 SD=2.650	M=2.50 SD=2.484	10.113 ***
소득	균등화가구연 소득 (M/SD)	M=1554.09 3 SD=1282.9 38	M=1171.06 5 SD=1065.7 57	M=1713.45 28 SD=1331.3 78	-9.027 ***
	ln균등화 가구연소득 (M/SD)	M=6.993 SD=.939	M=6.622 SD=1.025	M=7.147 SD=.855	-12.129 ***

주 1) 연속변수의 차이검정은 t test를, 명목변수 및 더미변수의 차이검정은 χ^2 test를 실시하였음.

2) *** p<0.001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분포와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성, 집중경향도, 왜도, 첨도를 알아보았다. 연속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의 경우 평균이 25.09, 표준편차가 4.342이었으며, 조절변수들의 경우, 참여 사회활동 개수는 평균 약 1.3가지 정도였고, 표준편차는 0.557이었다.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빈도는 평균 7.686, 표준편차 3.739였다. 자녀 접촉빈도는 평균이 28.726, 표준편차가 14.768,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는 평균이 7.079, 표준편차가 1.722였다.

통제변수인 ADL은 평균 .04, 표준편차 .469, IADL은 평균 .25, 표준편차 1.103, ln균등화가구소득은 평균 6.993 표준편차 .939, 연령은 평균 67.72세, 표준편차 9.02이었고, 마지막으로 우울은 평균 2.86, 표준편차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의 가정 중 하나인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인 경우, 정규성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Kline, 2010). 그러나 3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이루는 첨도의 본래 공식과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SPSS 통계 패키지에서는 0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기 때문에(Garson, 2012), 변수들의 첨도값에서 3을 더한 값의 절대값이 10미만인 경우를 정규성이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한다. 그리고 살펴본 결과, ADL과 IADL의 두 변수에서는 각각의 왜도와 첨도값이 정규성 검증의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로그변환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종속변수	인지기능	0	29	25.09	4.342	-1.496	2.440
	참여 사회활동 개수	1	5	1.306	0.557	1.822	3.289
조절변수	사회활동 참여빈도	0	31	7.686	3.739	1.446	2.901
	자녀 접촉빈도	0	90	28.726	14.768	.804	.531
	가족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0	9	7.079	1.722	-.907	.805
통제변수	ADL	0	7	.04	.469	12.620	169.02
	IADL	0	10	.25	1.103	5.574	35.943
	ln균등화 가구소득	3.88	9.62	6.993	.939	-.745	.337
	연령	53	97	67.72	9.02	.247	.053
	학력	1	9	3.96	1.444	.640	-1.592
	우울	0	10	2.86	2.94	.625	-.762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단순상관관계(Pearson's r)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사별여부와 종속변수인 인지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 = -.364$,

$p < .001$)가 존재했다. 이는 사별자 경우에 비해 유배우자인 경우에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점수인 인지기능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절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참여 사회활동 개수($r = .152, p < .001$), 자녀 접촉빈도($r = -.263, p < .001$),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r = -.099, p < .001$)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사별자 집단이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가 더 많으며, 반대로 자녀 접촉빈도와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는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조절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활동 개수와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r = .107, p < .001$), 사회활동 참여빈도와 자녀 접촉빈도($r = .05, p < .05$), 사회활동 참여빈도와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r = .298, p < .001$), 자녀 접촉빈도와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 빈도($r = .105, p < .001$)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가 높고, 사회활동 참여빈도가 높은 사람은 자녀 접촉빈도와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가 높으며, 자녀 접촉빈도가 높은 사람은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도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통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지기능은 성별($r = .105, p < .001$), 학력($r = .403, p < .001$), \ln 균등화가구소득($r = .27, p < .001$), 연령($r = -.481, p < .001$), ADL($r = -.195, p < .001$), IADL($r = -.277, p < .001$), 우울($r = -.267, p < .001$)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7가지는 모두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ADL과 IADL 지수가 낮을수록-즉,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는 성별($r = -.318, p < .001$), 학력($r = -.348, p < .001$), \ln 균등화가구소득($r = -.255, p < .001$), 연령($r = .401, p < .001$), ADL($r = .077, p < .001$), IADL($r = .086, p < .001$), 우울($r = .215, p < .001$)로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자보다 사

별자일수록 여성이고,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고, ADL과 IADL 지수는 높아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상관관계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0.1은 작은 상관관계, 0.3은 보통의 상관관계, 0.5이상은 큰 상관관계로 이해한다(Cohen, 1988). 본 연구에서는 단순상관관계의 크기가 0.5 이상으로 큰 상관관계 값을 가지는 변수들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성별	학력	ln균등화 가구소득	연령	ADL	IADL	우울	인지 기능	사별 여부	참여 사회 동개수	사회 참여 빈도	자녀 접촉 빈도
성별	1											
학력	.283 ***	1										
ln균등화 가구소득	.048*	.399 ***	1									
연령	.069**	-.426 ***	-.446 ***	1								
ADL	-.020	-.101 ***	-.048*	.111 ***	1							
IADL	.105 ***	-.070 **	-.050*	.179 ***	.493 ***	1						
우울	-.135 ***	-.212 ***	-.202 ***	.242 ***	.066**	.081 ***	1					
인지기능	.105 ***	.403 ***	.270 ***	-.481 ***	-.195 ***	-.277 ***	-.267 ***	1				
사별여부	-.318 ***	-.348 ***	-.255 ***	.401 ***	.077 ***	.086 ***	.215 ***	-.364 ***	1			
참여 사회 활동 개수	.092 ***	.255 ***	.146 ***	-.116 ***	-.035	-.039	-.115 ***	.152 ***	-.107 ***	1		
사회활동 참여빈도	.006	.102 ***	.020	.057**	-.033	-.019	-.050*	.007	.015	.816	1	
자녀 접촉빈도	.019	-.295 ***	-.325 ***	.481 ***	.065	.048*	.099 ***	-.263 ***	.147 ***	-.036	.050*	1
가족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032	-.141 ***	-.127 ***	.120 ***	.003	.052*	-.100 ***	-.099 ***	.103 ***	.107 ***	.298 ***	.105 ***

*p<.05, **p<.01 ***p<.001

제3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사별여부가 중·노년기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가 중·노년기 사별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와 다섯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중·노년기 사별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모델1).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들-참여 사회활동 가수, 사회활동 참여빈도, 자녀 접촉빈도,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투입하여 그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모델2). 이때,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한 뒤 분석에 포함하여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1.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본 절에서 첫 번째로 검증하고자하는 연구문제는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 기능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노년기 인지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인 사별여부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Model 1).

연구문제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 1. 중·노년기에 사별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Model 1.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hat{Y} = a + b_1 D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X_6 + b_7 D_7 + e$$

Y: 인지기능

D_1 : 성별(여=0, 남=1)

X_2 : 연령

X_3 : 최종학력

X_4 : ln균등화가구소득

X_5 : ADL

X_6 : IADL

D_7 : 사별여부(유배우자=0, 사별=1)

주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5]의 Model 1에 정리하였다. 우선,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F값은 142.510로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수정된 R^2 은 .349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중·노년기 사별이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의 변량의 34.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도를 보면, 독립변수인 사별여부가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 = -.132$, $p < .001$). 이로써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주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력, 연령, ADL, IADL, 그리고 우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b = .186$, $p < .001$)은 노년기 사별자의 인지기능에 정적영향을, 연령($b = -.290$, $p < .001$), IADL($b = -.176$, $p < .001$), 그리고 우울($b = -.108$, $p < .0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중·노년기 사별자의 인지기능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노년기 사별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보면, 연령, 학력, IADL, 우울 순으로 중·노년기 사별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Model 1		
		B	S.E.	β
통제변수	성별	.302	.184	.033
	학력	.559	.064	.186***
	ln균등화가구소득	-.005	.094	-.001
	연령	-.140	.011	-.290***
	ADL	-2.705	1.406	-.039
	IADL	-2.000	.234	-.176***
	우울	-.181	.031	-.108***
독립변수	사별여부	-1.256	.199	-.132***
상수		37.712***		
R^2		.351		
Adjusted R^2		.349		
F		142.510***		

* p<.05, **p<.01, ***p<.001

2.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다음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한 후 분석에 포함하고 조절변수들과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2.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1) 사회 활동

<가설 2-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참여하는 사회 활동의 개수가 많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가설 2-2>.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활동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2) 자녀

<가설 2-3>.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3) 가족 이외 인간관계

<가설 2-4>.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족 이외 인간관계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들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수 4가지 각각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그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는 상호작용 효과 모형(Model 2)을 설정하였으며 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Model 2.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hat{Y} = a + b_1 D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X_6 + b_7 D_7 + b_8 X_8 + b_9 X_9 + b_{10} X_{10} + b_{11} X_{11} + b_{12} X_{12} + b_{13} X_{13} + b_{14} X_{14} + b_{15} X_{15} + e$$

\hat{Y} : 인지기능

D_1 : 성별(여=0, 남=1)

X_2 : 연령

X_3 : 최종학력

X_4 : ln균등화가구소득

X_5 : ADL

X_6 : IADL

D_7 : 사별여부(유배우자=0, 사별=1)

X_8 :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

X_9 : 사회활동 접촉빈도

X_{10} : 자녀 접촉빈도

X_{11} : 가족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X_{12} : 사별여부*참여하는 사회활동개수

X_{13} : 사별여부*사회활동 접촉빈도

X_{14} : 사별여부*자녀 접촉빈도

X_{15} : 사별여부*가족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모형에서는 R^2 변화량에 대한 F값이 유의하고,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양오석, 2013). 우선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모형에서 R^2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들 가운데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는 R^2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와 사회활동접촉빈도 그리고 중·노년기 사별 여부 간의 각 상호작용항의 R^2 변화량은 $p < .001$ 수준, 자녀 접촉빈도와 중·노년기 사별여부의 상호작용항의 R^2 변화량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4>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은 지지되었다. 이는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와 자주 연락하며 만날수록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의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의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지만,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 사회활동 접촉빈도, 자녀 접촉빈도가 사별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Model 2		
	B	S.E.	β
성별	.219	.183	.024
학력	.508	.066	.169
ln균등화가구소득	-.034	.095	-.007
연령	-.125	.012	-.259
ADL	-3.280	1.404	-.047
IADL	-1.949	.233	-.172
우울	-.192	.031	-.115
사별여부(A)	-1.409	.357	-.148
참여하는 사회활동개수(B)	.329	.296	.042
사회활동접촉빈도(C)	-.038	.047	-.033
자녀접촉빈도(D)	-.003	.007	-.011
가족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E)	-.015	.057	-.006
(A)*(B)	2.502	.594	.156***
(A)*(C)	-.250	.084	-.116***
(A)*(D)	-.021	.011	-.066*
(A)*(E)	-.019	.109	-.004
상수	38.092***		
R^2	.365		
Adjusted R^2	.360		
R^2 change	.008***		
F	75.392***		

*p<.05, **p<.01, ***p<.001

제6장. 질적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

면담은 총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회의실을 대여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청북도 ○○시에 거주하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61세~81세의 중·노년층 8명이다. 만 65세 미만의 중년층이 2명,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6명이었으며, 남성이 3명, 여성이 5명이었다.

표 7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출생년도	연령	사별연월
A	남	1933년	76세	2014년 1월
B	남	1940년	80세	2011년 4월
C	여	1936년	65세	2009년 4월
D	여	1951년	63세	2010년 6월
E	여	1953년	66세	2009년 3월
F	여	1955년	61세	2014년 1월
G	남	1935년	81세	2013년 11월
H	여	1938년	78세	2012년 9월

2. 연구결과

1)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사별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 혹은 몇 년 간의 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기존에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읽지 못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사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있던 일이 기억이 잘 안나요. 오죽하면 보건소가서 치매 검사를 했다니까. 아직 치매는 아니라는데. (F)”

“우리 아파트에 5년 전에 사별하신... 그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5년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기억을 못해서 지금까지도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컸나 봐요. 이제 62세신데. (D)”

“13년 동안 아프다가 간 후에도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정신이 내가 딱 잊어버린 것이.. 청주병원 영안실에 갖다 놓고서 사무 보는 그 양반도 천사님인가 그랬는데 애들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 이름이 생각이 안나. 한참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천천히 해도 된대서 한참동안 생각을 막 하니까 그제야 생각나는 거예요. 졸지에 당하면 그렇게 충격이 크더라..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아무 생각이... 충격 받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중략)... 그 동안에 뭐 어떻게 그냥 살은 세월이 한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지나간 게 하도 괴로운 일만 있어서.. 한 5년 동안에... 안식구 보내고서.. 내가... 아주 ... 그냥 이겨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B)”

“글자를 지금은 읽기는 하는데 입으로 말이 안 나와요. 읽어지지 않아. 눈으로 봐도 말이 얼른 안 나오고 눈으로 들어오는데 입으로 안 나와... 어떤 글자가 있으면 단어 뜻은 아는데 이상하게 입에서 얼른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G)”

"말하는 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시장에 가서 뭘 사려고 했는데 이름

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왜 국물 시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상인)도 못 알아들어서 못 샀지. 나중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거였어. 미더덕. (H)“

“충격이 커서 뇌 지지를 않아서 그래. 머리 항상 뻘도니까 정신이 흐려지는 거요. 그걸 봐야 되는데 마음에야 그렇지만 머리에서 안 봐지니까. (A)”

2)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1) 참여 사회활동의 개수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의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사별 관련 생각을 잊게 되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기분전환이 된다고 하였다.

“제가 여러 사회활동을 하니까 마음에 위안이 돼요. 사람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위안이 되고 잡념이 사라지고. (F)”

“저는 밖의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장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뭐 모임도 많고.. 열심히 밖에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고 하면 기분전환도 되고 훨씬 낫더라고요. (D)”

(2) 사회활동의 참여빈도

사회 활동을 자주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활력을 얻게 하고 사별 관련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였다.

“저는 주일마다 목장모임을 매주 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 자주 나

오면서 저도 신이 나죠. 목장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든 어르신들이니까 내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만 활력소를 얻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의욕이 더 생기게 하는 활력을 얻어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다행히 어르신들이 협조도 잘해주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던 호응도 잘해주고 하셔서 고맙고 감사하죠. (D)”

“어디 일손 모자란다고 하면 수시로 가서 일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잡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그런 게 자꾸 떠오르고 어디 가서 지껄이고 그럼 그런 생각도 안 나니까. (C)”

(3) 자녀 접촉 빈도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이 마음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러한 자녀와의 접촉이 감사하고 힘이 되고 또 기쁘다고 이야기 했다.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하니까 힘이 되고 좋죠. 아들이 매일 퇴근할 때면 꼭 전화를 한 통화 씩 해요. ‘엄마 뭐 잡수셨어요’ 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건 아빠가 엄하게 길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한테 마음적으로 하려고해요. 그래서 막내도 엄마 안 올라오시냐고 화상통화하고 그래. 그래서 애들하고 통화 자주하니까 내가 감사하죠.(E)”

"뭘 혼자 있는 걸 잊어보려고 산에 가서 나무도 정리하고, 풀도 깎고 해 보지만.. 그래도 좋은 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도 좋지만, 자녀들이 사진도 문자로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면 그 시간이 참 힘이 돼요. 물론 만나서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지만 각자 생활이 바빠 어려워니 전화상으로 하는 것만도 고맙지요. 그 만큼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연락을 해주는 거니까. 어쩔 때 딸이 화상통화를 걸었는데 못 받고 놓치면 아쉽고. 그러면 문자로 ‘아빠 나 언제 언제 전화할게’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런 걸로나마 얼굴 자주 보고 목소리 자주 듣고 하면 기쁘지요. (G)“

(4)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형제나 자녀들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고맙고 그 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는 반면, 친구보다 가족이 사별자의 삶에 더 힘이 될 뿐 아니라 친구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 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 지난 이야기하고 하면서 나보다 더 친구들이 내가 겪는 이 삶을 더 아파하는 걸 보면 고맙고 그런 마음에 풀어지는 거죠. 위로가 되고. 수시로 불러내서 밥도 같이 사먹고 차도 마시고 가까운데 가면서 얘기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위로와 힘이 돼요. ...(중략)... 정말 형제나 자녀들보다도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해주는 친구가 딱 4명이거든요. 나까지 다섯이죠. 다섯이 다 같이 모이거나 하진 않아요. 따로 따로 만나는데 정말 그 힘든 시절을 친구들 덕에 이겨냈어요. 수시로 자기들이 와서 밥사주고 힘을 실어주어서 정말 친구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D)“

“저는 오로지 가족들. 친구들은 깊이 안 만나고 가족들 중심으로 해요. 친구들이 있어도 어쨌든 가족이 제일이에요.(E)“

“아무리 다정해도 남은 남이요. 가족이 첫째지.. 다른 거 봐도 정말 친근하게 인사해도 남은 남인거요. 가족이 첫째요. 내 무덤에 흠 한 삼 떠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친구지 돈 떨어지면 쳐 다도 안 보는걸 뭐 돈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하다가 돈 떨어지면 쳐다도 안 봐.(A)”

제7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양적 연구결과 요약

배우자를 잃는 것은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생애사건인 동시에, 사별자의 생활에 중추적 역할을 하던 존재를 상실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발달적 전환(장수지, 2011)으로 작용한다.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변화된 삶에서 사별자는 외로움, 우울, 슬픔 등의 감정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 건강상태가 취약해지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뇌 세포가 손상되어 인지기능의 수준이 낮아지는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요 생애사건인 사별을 다룬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편이다. 그리고 일부 사별과 같은 결혼상태를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이 신체적 건강이나, 우울 등과 사별 간의 관계를 다뤄와 성공적 노화의 한 요소로 손꼽히는 인지기능(Rowe & Khan, 1988)과 사별 간의 관계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별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별자의 사별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자원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별 그리고 인지기능 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적응유연성 모델을 개념적 모형으로 활용하여, 사별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효과와 검증은 주로 하고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배지연, 2003),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 모형의 검증을 통해 사별이라는 특정 조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성별, 연령, 학력,

ADL, IADL, 우울, 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4가지 변수(참여 사회활동 개수, 사회활동 참여빈도, 자녀 접촉빈도,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에 따라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확인하는 주효과 모형,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호작용효과 모형을 설정한 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5차(2014년) 조사자료 가운데 혼인상태를 사별과 유배우자라고 응답한 2,117명의 응답내용이며,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의 지지 혹은 기각 여부는 아래의 [표8]에 정리하였다.

표 8 연구 가설 지지 및 기각여부

연구문제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 1. 중·노년기 사별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u>지지</u>
연구문제2.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1) 사회 활동	가설 2-1.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참여하는 사회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u>지지</u>
	가설 2-2.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 활동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u>지지</u>
(2) 자녀	가설 2-3.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u>지지</u>
(3) 가족 이외 인간 관계	가설 2-4.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족 이외 인간관계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감소될 것이다.	<u>기각</u>

2. 질적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 간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양적 자료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깊은 연구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질적연구를 시행하였다. 질적연구방법으로는 특정 집단의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그룹 토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양의 조직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절한 방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눈덩이 표집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 가운데 FGI 면담에서 적절한 역동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주제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 8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정하였다. 면담의 설문내용은 양적 자료분석에서 사용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설문 문항들을 반구조화하여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면담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전사하여 프레임워크 분석방법(Krueger, R. A., 1994; Rabiee, F., 2004; Ritchie, J., & Spencer, L., 1994)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아래의 [표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9 FGI 자료 분석 내용

1.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혹은 사별 후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현상. - 치매를 의심해 보건소에서 검사도 받아보았으나 치매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음. - 자녀 이름이 생각이 안 남. - 책을 읽는 데 갑자기 소리 내어 읽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함. -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나타남. - 사별 후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문제들은 사별 충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함. 사별 관련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정신이 흐려진다고 생각함. 	
2.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 사회활동 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전환이 되고 잡념이 사라짐.
사회 활동 참여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활동을 자주 하면서 신이 나고 활력을 얻음. -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홀로 남은 삶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잊게 함.
자녀 접촉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는 것이 힘이 되고, 자신을 심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생각되어 감사함. - 자녀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쁨.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해소함.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모습에서 위안을 얻음. - 형제나 자녀들보다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고맙고 큰 힘이 됨. -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면 남이 되는 사이이고 아무리 친근해도 남은 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제2절. 연구결과 논의

1.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

중·노년기 사별자는 사별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그리고 애도 정서, 스스로 돌보는 것에 대한 소홀함 등 여러 복합적 과정을 통해 사별 후 홀로 된 삶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한 생애사건이자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의 상실인 배우자 사별이 사별자의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쳐, 그에 대한 결과로서 인지기능 수준의 저하가 야기된다고 보고, 유배우자에 비해 사별자의 인지기능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FGI 면담을 통해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지 알아본 결과, 사별자는 대화상대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무서움, 우울함 그리고 극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별 스트레스를 겪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적 자료 분석 결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중·노년기 사별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인지기능의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I 면담을 통해서도 사별자들은 사별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배우자를 잃은 이후 몇 년의 일 또는 하루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입으로 소리 내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등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분석을 통해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사별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사별자가 가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사별 스트레스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적응 유연성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호작용효과 모형을 구성하였다. 4가지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 가운데 참여 사회활동의 개수, 사회활동 참여빈도, 그리고 자녀 접촉빈도는 중·노년기 사별과 인지기능 수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들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개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참여하는 사회 활동의 개수에 따라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FGI 면담을 통해 여러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별자에게 기분전환과 잡념을 사라지게 한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들 수 있었다. 참여 사회활동의 개수가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대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인지기능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전해숙, 2013)을 시사한다. 더불어 사별자가 스스로 어떤 사회활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행동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촉진(황종남, 권순만, 2009)되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둘째로, 사회활동 참여빈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사회활동 접촉빈도에 따라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FGI 면담에서도 사회활동을 자주하면 신이 나고 활력을 얻으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홀로 된 삶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을 잊게 된다고 이야기하여, 사회활동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조절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활동을 통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개인으로 하여금 인지적 도전(cognitive challenge)을 경험하게 하여(김호영, 2015) 사별자의 인지저하에 보호 작용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로, 자녀접촉빈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이야기된 바처럼 성인자녀와의 만남이 노인에게 긍정적 감정과 생활만족을 불러일으키는(배진희, 2004)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GI 면담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자신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이 힘이 되고, 자녀들이 그만큼 자신을 심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기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는 자녀와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 노인의 건강(손정연, 한경혜, 2012)과 인지기능은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최희정, 민주홍, 2015)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가 높은 것은 인지기능의 악화로 인해 가족 이외 인간관계의 도움이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전해숙, 2013)이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FGI 면담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고 헤아려주는 친구들의 존재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는 한편, 친구는 어디까지나 남이고 돈이 있을 때만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사별자 개인에 따라 가족 이외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와 그로 인한 관계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원으로써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참여하는 사회활동 개수, 사회활동 접촉빈도, 그리고 자녀 접촉빈도는 사별이 미치는 부적영향으로부터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는 그러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이외 인간관계가 중·노년기에 있어 갖는 의미가 개인마다 상반된 경향이 있고, 그러한 관계의 접촉빈도가 늘었다는 것이 그저 사회적 지지 수준의 증가가 아니라 인지기능 악화를 예측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충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중·노년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배우자의 사별은 노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겪는 생애사건인 동시에, 중·노년기의 결혼상태 변화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삶의 주요 관계 중 하나였던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중·노년층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노년기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별 관련한 많은 연구들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사별을 다룸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성공적 노화의 요건 중 하나이자, 결혼상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되어온 인지기능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Rowe와 Khan(1988)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높은 정신적 기능의 유지인데, 중·노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 기능의 저하가 인지기능의 저하(강지원, 김성택, 유병욱, 오정은, 홍성호, 조주연, 2003)이므로 이러한 정신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지기능의 수준을 보존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기능이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저하될 수 있다는 사별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국내에서는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배우자 상실이 중·노년기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적응유연성 모델 검증을 통해 어떤 조건 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기존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갖는 주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사회

적 상호작용이 보호, 즉 상호작용의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별이라는 특정 상황 하에서 작동하는 기제를 적응유연성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었다.

넷째, 전국 규모 데이터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시켰고, 질적 자료분석을 함께 진행하여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 대한 보다 발전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표본 유지를 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간접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위해 FGI 면담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기능 뿐 아니라 사별이 사별자에게 미치는 여러 영향들에 대한 면밀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별자의 인지기능 단순히 노화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 사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별자가 사별이란 생애사건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이차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사별은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설명한대로, 우울, 외로움, 무서움 불안 등의 정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나 혈관 질환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것처럼 심지어 인지기능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사별이 중·노년기 사별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영향이 노년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별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다.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개수, 사회활동 참여빈도, 자녀 접촉빈도가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들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사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종류를 당사자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사회적 활동들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여러 종류의 보상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사별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별자 이해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별자가 자녀들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그들의 지속되는 삶에 지지적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독려함으로써 사별자와 자녀간의 연락과 만남의 지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별자 가족 캠프를 통해 사별자를 중심으로 가족 체계가 다시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별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별이 사별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또 지대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별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이 주로 병원 내 암 병동, 호스피스 병동 또는 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환자 가족의 사별자에만 제한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사별 인구 전체가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역 기관 차원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확장하여 지역 사회 내의 더 많은 사별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과 기반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중·노년기 사별이 인지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적응유연성모델의 상호작용효과 모델을 활용하여 그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완충역할을 살펴보았다. 개념 및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추후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완되길 바란다.

첫째,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5차시 자료만을 활용하였는데, 횡단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결혼 상태의 변화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배우자 상실로 인해 사별자가 겪게 되는 인지기능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한 결혼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추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지기능의 저하와 사별의 영향 아래 있는 중년기가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는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여 사별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연령기의 차이를 보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준고령자나 젊은 노인의 경우 그 이전 세대의 노인에게 비해 배우자에게 갖는 애정과 친밀감(Mineau, Smith & Bean, 2002)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욱 크다는(손정연, 한경혜, 2012) 선행연구들의 보고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중년기와 노년기 각 연령기의 사별이 인지기능에 갖는 영향의 차이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양적자료분석 결과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함께 진행된 질적자료분석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인원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능한 거주지의 크기에 따른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중도시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FGI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사회적 지지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크기나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질적자료분석의 결과를 전체 사별자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 모델을 바탕으로 배우자 상실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불가피한 생애사건인 배우자 사별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건인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보호효과를 알아보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고민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오래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오랜 시간 인생의 한 축이었던 사랑하는 배우자의 상실은 비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별자가 상실의 고통을 딛고 변화된 삶에 대한 새로운 적응을 함으로써 계속되는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추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강지원, 김성택, 유병욱, 오정은, 홍성호, 조주연(2003). “경인지역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요인”. 가정의학회지, 24, 461-472.
- 고영복(2000). 사회학 사전 / 고영복 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기태, 박미진(2005). “여성 노인의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29, 71-90.
- 김동배, 이효정, 전홍진, 채수진, 조맹제(2008).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증상 유무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인지기능 비교”. 신경정신의학, 47(2), 83-189.
- 김미령(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 김성엽, 기백석, 남범우, 이상훈(2000). "폐경기 여성에서 에스트로젠 사용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9(1), 183-189.
- 김승연, 고선규, 권정혜(2007). “노인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573-596.
- 김신열, 김순규, 서효정(2011). “배우자 사별노인의 우울과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1(3), 165-196.
- 김윤정(2008). 『노년기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태현,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8-38.
- 김호영(2015). “노년기 사회적 삶과 인지기능”. 한국심리학회지, 34(1), 225-251.
- 박미정(2011). "노인의 인지기능과 균형능력 및 삶의 질.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3(2), 185-192.
- 배지연(2003). 사회적 지지에 관한 사회복지 논문분석 -주효과, 완충효과 모델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45-265.

-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 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 백옥미(2013). “중,노년기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94-115.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치매센터(2012),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사회적 지지연구회(2002). 『사회적 지지와 건강』. 사회적 지지연구회 역. 서울: 현문사.
- 손의성(2007).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289-322.
- (2008). “배우자 사별 노인의 종교참여와 대처자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83-204.
- 송민옥(2006). "장기요양시설 이용 유·무에 따른 노인의 인지기능 비교".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 손정연(2011). “노년기 결혼지위와 건강: 경제적·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학위 논문.
- 손정연, 한경혜.(2012). "결혼상태의 지속 및 변화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제자원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35, 5-40.
- 손종미, 변상해(2015). "노년기 배우자 사별이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33-242.
- 손지현, 한덕현, 기백석(2013). “배우자 동거여부가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노인정신의학, 17(1), 14-19.
- 송지은, Marks.(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종단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 양오석. (2013). 경영 연구를 위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검증방법에 대한 밀성 제고.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11), 478-508.
- 오영희, 배화옥, 김윤신(2006).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

- 적 및 정신적 기능상태의 관련성 연구”. 한국노년학, 26(3), 461-476.
-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이민아(2014). “사별과 우울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인구학, 37(1), 109-130.
- 이윤석(2012).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남녀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한국인구학, 35(2), 103-131.
- 이윤주, 조계화, 이현지(2007). “사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8(3), 839.
- 이현주, 강상경(2011). “노년기 인지기능의 성별 및 연령차이”.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4), 255-278.
- 장수지(2010). “노년기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 (2011). “중·노년기 배우자 사별 전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노년학, 31(4), 1083-1101.
- 전해숙(2013). “노인 인지문제 개선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 고령자패널데이터(KLoSA)를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3(2), 461-488.
- 정순돌(1997). “사회사업에의 체계망 분석법 적용”. 연세사회복지연구, 4, 211-232.
- 전은영(2006). “재가노인의 일상생활활동(ADL)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실태”. 동서간호학연구지, 21(1), 56-61.
- 정은주, 최기홍(2013).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성별과 결혼상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8(1), 17-31.
- 정형수, 이지영, 김소연, 양은주(2014). “한국 성인의 사별에 의한 복합비애경험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3(1), 81-107.
- 차승은(2007). “노인의 결혼지위 점유에 따른 건강차이: 노년기 사회적 지

- 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371-392.
- 최성재, 장인협(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영아, 이정덕(2000).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2 - 전주시 거주 재혼자의 노년기 생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87-108.
- 최창용(2014). “아토피 피부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최희정, 민주홍(2015). “성인자녀-부모관계와 부모의 인지기능-구조적·연계적 결속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4), 105-118.
- 평평, 정용길.(2012). “서비스 환경이 서비스 품질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90-400.
- 한국고용정보원(2016), 『5차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 유의사항』,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연구원(2011),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 기본조사 데이터 생성변수 안내서1』,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성인교육학회(1998). 교육평가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선민. (2009). “초점집단 면접”. 마케팅, 43(7), 53-58.
- 허선영(2003).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종남, 권순만(2009).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29(3), pp.971-986.

- Aiken, L., West, S., & Reno,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IV*.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PA.
- Albert, M. & Heaton, R.(1988). Intelligence testing. In: Albert MS, Moss MB, editors. *Geriatric Neuropsyc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13-32.
- Albert, M., Jone, K., Savage, C., Berkman, L., Seeman, T., Blazer, D., & Rowe, J.(1995). Predictors of cognitive change in older persons. *Psychology and Aging*, 10(4), 578-589.
- Bankoff, A.(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4). 827-839.
- Barnes, L., Mendes de Leon F., Wilson, S., Bienias, L., & Evans, A.(2004). Social resources and cognitive decline in a population of older African Americans and whites. *Neurology*, 63(12), 2322-2326.
- Barnes, D., Alexopoulos, G., Lopez, O., Williamson, J., & Yaffe, K.(2006). Depressive symptoms, vascular disease,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3(3), 273-280.
- Bartrop, W., Lazarus, L., Luckhurst, E., & Kiloh, G.(1977). Depressed lymphocyte function after bereavement, *Lancet*. 1(8016), 834-836.
- Bassuk, S., Glass, A., & Berkman, F.(1999). Social disengagement

- and incident cognitive decline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1, 165-173.
- Boss, L., Kang, D., & Branson, S.(2015). Loneliness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older adult. *A systematic review*. 27(4), 541-553.
- Brown, S. L., House, J. S., & Smith, D. M.(2006). Interpersonal and spiritual connections bereaved older adults. In D. Carr, R. M. Nesse, & C. B. Wortman, C. (Eds.), *Spousal Bereavement in Late Life*.
-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hen, S.E., & S. Syme.(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Diego: Academic Press.
- Crooks, V. C., James L., Diana B, P., Deborah, L., & Vicki, C.(2008). Social Network, Cognitive Function, and Dementia Incidence Among Elderly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7), 1221-1227.
- Dyer, & Mcguinness.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17-528.
- Ell, K.(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Social Service Review*, 58(1), 139-147.
- Eriksson B. G., Mellstrom D., & Svanborg, A.(1987). Medical-social intervention in a 70-year-old Swedish population. A general presentation of methodological experience. *Comprehensive Gerontology*, Dec 1: 49-56.
- Feng. L., Xue-Ting. N, Philip. Y., Jialiang. L., Tih-shih. L., Håkansson. K., Ee-Heok. K., & Tze-Pin. N.(2014). Marital

- Status and Cognitive Impairment among Community-Dwelling Chinese Older Adults: The Role of Gender and Social Engagement.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extra*, 4(3), 375-384.
- Fratiglioni, L., Wang, H., Erickson, K., Maytan, M., & Winblad, B.(2000). Influence of social network on occurrence of dementia: a community-based longitudinal study. *The Lancet*, 355(9212), 1315-1319.
- Green, A., Rebok, G., & Lyketos, C. G.(2008). Influence of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n cognition and functional status with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3(9), 972-978.
- Goldman, N., Korenman, S., & Weinstein, R.(1995). Marital status and health among the elderl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0(12), 1717-1730.
- Grimby, A., & Berg, S.(1995). Stressful life events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late life. *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7(1), 35-39.
- Haggerty, R. J., Sherrod, L. R., Garmezy, N., & Rutter, M. (1994).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Wiley Online Library.
- Håkansson, K., Rovio, S., Helkala, E., Vilska, A., Winblad, B., Soininen, H., Nissinen, A., Mohammed, A. H., & Kivipelto, M. (2009). Association between mid-life marital status and cognitive function in later life: Population based cohort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39.
- Hardy, S. E., Concato, J., Gill, T. M. (2004). Resilience of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Journal of American*

- Geriatrics Society*, 52, 257-262.
- Helmer, C.(2009). Dementia and marital status at midlife and late life. *British Medical Journal*, 339(7712), 57.
- Hildon, Z., Montgomery, S. M, Blane, D., Wiggins, R. D., & Netuveli, G. (2009). Examining resilience of quality of life in the face of health-related and psychosocial adversity in older adults: What is “right” about the way we age?. *The Gerontologist*, 50(1), 36-47.
- Holtzman, E., Rebok, W., Saczynski, S., Kouzis, C., Doyle, W., & Eaton, W.(2004).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and cognition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9B, 278-284.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House, S., & Kahn, L.(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83-108.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Hultsch, F, Hammer, M., & Small, J.(1993). Age differences in cognitive performance in later life: Relationships to self-reported health and activity life styl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8, 1-11.
- Jacobson, D. E.(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50-264.
- James, B., Wilson, R., Barnes, L., & Bennett, D.(2011). Late-life social activity and cognitive decline in old ag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17(6), pp.998-1005.
- James, B. D., Glass, T. A., Caffo, B., Bobb, J. F., Davatzikos, C.,

- Yousem, D., & Schwartz, B. S.(2012). Association of social engagement with brain volumes assessed by structural MRI. *Journal of Aging Research*.
- Jeste, D. V., Depp, C. A., & Vahia, I. V.(2010). Successful cognitive and emotional aging. *World Psychiatry*, 9(2), 78-84.
- Kaplan, B., Cassel, J., &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 Kaplan, C. P., Turner, S., Norman, E., & Stillson, K. (1996). Promoting resilience strategies: A modified consultation model. *Social Work in Education*, 18(3), 158-168.
- Kahn, R. L., Zarit, S. H., Hilbert, N. M., & Niederche, G.(1975). Memory complaint and impairment in the aged: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ltered brain func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12), 1569-1573.
- Kahn, R. L., & Antonucci, T. C.(1980). Conve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Boston: Lextiongton press.
- Kawachi, I., & Berkman, L. F.(2001).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78(30), 458-467.
- Kline, R. B.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2010).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학지사.
- Krueger, R. A.(199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ee, S., Burning, J., Cook, N., & Grodstein, F.(2006). The relation of education and income to cognitive function among professional women. *Neuroepidemiology*, 26(2), 93-101.
- Lezak, M.(1995).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eberman, M. A., & Peskin, H.(1992). Adult life crisis. In J. E. Birren, R. B. Sloane, & G. D. Cohen (Eds.), *Handbook of mental health and aging*, San Diego: Academic Press.
- Lin, N., Dean, A., & Ensel, W. M.(1986). Model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 Academic Press.
- Lin, N., & Ensel, W. M.(1991). The life stress paradig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4), 321-341.
- Litwin, H., & Landau, R.(2000). Social Network Type and Social Support Among the Old-Old. *Journal of Aging Studies*, 14(2), 213-228.
- Litwin, H.(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4), 516-524.
- Litwin, H., & Shiovitz-Ezra, S.(2011). Social network typ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mericans. *The Gerontologist*, 51(3), 379-388.
- Lopata, H. Z.(1993). The support system of American urban widows. In M. S.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 (Eds.), *Handbook of bereave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1-396.
- (1996). *Current widowhood: myths and realities*. Thousand Oaks, CA: Sage.
- Lupien, Fiocco, Wan, Maheu, Lord, Schramek, & Tu.(2005). Stress hormones and human memory function across the lifespan. *Psychoneuroendocrinology*, 30(3), 225-242.
- Malone, J.(1988). The social support dissupport continuum. *Journal of Psychological Nursing*, 26, 12, 18-22.
- Masten, Ann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azzuco, S., Meggiolaro, S., Ongaro, F., & Toffolutti, V.(2016). Living arrangement and cognitive decline among older people in Europe. *Ageing and Society*, 1-23.
- Milardo, R. M.(1988).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R. M. Milardo(Ed.), Newbury Park: Sage, 13-47.
- Mineau, G. P., Smith, K. R., & Bean, L. L.(2002). Historical Trends of Survival among Widows and Widow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4(2), 245-254.
- Mor V., McHorney C., & Sherwood S.(1986). Second morbidity among the recently bereaved.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58-163.
- Murray, R., Huelskoetter, M. M., & O'Driscoll, D.(1980). *The nursing process in later mat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 Najenson, T., Rahmani, L., & Elazar, B.(1984). *An Elementary Cognitiv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the Craniocerebrally Injured Patient*. New York: Plenum.
- Parkes C. M.(1964). Effects of bereavemen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 a study of the medical records of widows. *British Medical Journal*. 2(5404), 274-279.
- (1975). Determinants of outcome following bereavement. *Omega* 6, 303-323.
- Rabiee, F.(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 655-660.
- Ritchie, J., & Spencer, L.(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In *Analysing Qualitative Data*, 173-194 [A Bryman and RG Burgess, editors]. London: Routledge.
- Rook, K. S.(1997).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exchanges:

- Weighing their effects in later life. Invited Editorial.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2, 167-169.
- Rönnlund, M., Nyberg, L., Backman, L., & Nilsson, L. G. (2005). Stability, growth, and decline in adult life span development of declarative memory: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data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Psychology and Aging*, 20, 3-18.
- Rossi, N. E., Bisconti, T. L. (2007). The role of dispositional resilience in regaining life satisfaction after the loss of a spouse. *Death Studies*, 31, 863-883.
- Rowe, J. W. and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Random House.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7-331.
- Schoon, I., Bynner, J. (2003). Risk and Resilience in the Life Cours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Youth Studies*, 6(1), 21-31.
- Seeman, T. E. (1996). Social ties and health: the benefits of social integration. *Annals of Epidemiology*, 6(5), 442-451.
- Seeman T., Lusignolo, T., Albert, M., & Berkman, L. (2001). Social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Patterns of Cognitive Aging in Healthy, High-Functioning Older Adult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Health Psychology*, 20(4), 243-255.
- Singh-Manoux, A., Kivimaki, M., Elbaz, A., Berr, C., Ebmeier, K., Ferrie, J., & Glymour, M. (2012). Timing of onset of cognitive decline: results from Whitehall II prospective cohort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44, d7622.
- Southwick, S., Vythilingam, M., & Charney, D. (2005). The

- Psychobiology of Depression and Resilience to Stres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1, 255-291.
- Stein Z., & Susser M.(1969). Widowhood and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Preventive & Social Medicine*, 23(2), 106-110.
- Stern, Y. (2012). Cognitive reserve in ageing and Alzheimer's disease. *Lancet Neurology*, 11, 1006-1012.
- Thompson, J. G., Simpson, A. C., Pugh, P. A., Wright, R. W. Jr., & Tervit, H. R.(1991). Glucose utilization by sheep embryos derived in vivo or in vitro. *Reproduction, Fertility and Development*, 3, 571-576.
- Tombaugh, T. N., & McIntyre, N. J.(1992).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0(9), 922-935.
- Trojano L., Antonelli, I., Acanfora, D., Picone, C., Mecocci, P., & Rengo, F.(2003). Cognitive impairment: a key feature of congestive heart failure in the elderly. *Journal of Neurology*, 250(12), 1456-1463.
- Umberson, D.(1987). Family status and health behaviors: Social control as a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3), 306-319.
- Umberson, D., &Williams, K. (1999). Family status and mental health. In C. Aneshensel & J. C. Phel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New York: Kluwer Academic / Plenum, 225-254.
- Umberson, D., Wortman, C. B., & Kessler, R. C.(1992). Widowhood and depression: explaining long-term gender difference in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1), 10-24.
- Utz, R. L., Carr, D., Nesse, R., & Wortman, C. B.(2002). The effect

- of widowhood on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An evaluation of activity, disengagement, and continuity theories. *The Gerontologist*, 42(4), 522-533.
- Vaux, A.(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 Wallace, A.(1999). *The psychology of the interne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ace, K. A., Bisconti, T. L., Bergeman, C. S. (2001). The mediational effect of hardiness on social support and optimal outcomes in later lif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4), 267-279.
-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 Ward, L., Mathias, J. L., & Hitchings. S. E.(2007). Relationships between Bereavement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Older Adults. *Gerontology*, 53(6), 362-372.
- Wellman. B., & Wortley, S.(1990). Different Strokes from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3), 558-588.
- Wheaton, B.(1985). Models of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4), 352-364.
- Wilks, S. E., & Croom, B.(2008). Perceived stress and resilience in Alzheimer's disease caregivers: Testing moderation and mediation models of social support. *Aging & Mental Health*, 12(3), 357-365.
- Wilks, S. E., & Spivey, C. A.(2010). Resilience in under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academic stress. *Social Work Education*, 29(3), 276-288.

- Wills, T. A.(1985).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61-82.
- Xavier, F., Ferraz, M., Trentini, C., Freitas, N., & Moriguchi, E.(2002). Bereavement-Related Cognitive Impairment in an Oldest-Old Community-Dwelling Brazilian Sample.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24(3), 294-301.
- Zarit S.H., Gallagher G., & Kramer N.(1981). Memory training in the community aged: Effects of depression, memory complaints, and memory performance. *Educational Gerontology*, 6(1) 11-27.
- Zelinski, E. M., Gilewski, M. J.(2003). Effects of demographic and health variables on Rasch scaled cognitive scor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5, 435-464.

부록: 측정도구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014)의 문항 중 연구에 활용한 문항만 발췌, 수록하였다.

1. 종속변수: 인지기능(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401.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음력인 경우, 날짜 확인 후 맞으면 정답)

- ① 년도, 월, 일 중 한 가지만 정답
- ② 년도, 월, 일 중 두 가지 정답
- ③ 년도, 월, 일 세 가지 모두 정답
- ⑤ 세 가지 모두 오답

C402. 그러면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어느 요일인가요?)

- ① 요일 정답
- ⑤ 요일 오답

C403. 지금이 어떤 계절이지요? (요즈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이지요?)

- ① 계절 정답
- ⑤ 계절 오답

C404. 현재 [응답자 성명]과 제가 있는 이곳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① 장소 정답
- ⑤ 장소 오답

C405. [응답자 성명]의 주소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시(도), 구(시,군), 동(읍,군,면), 번지(세부주소) 4가지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 ① 시(도), 구(시, 군), 동(읍, 군, 면), 번지(세부주소) 중 한 가지만 정답
- ② 시(도), 구(시, 군), 동(읍, 군, 면), 번지(세부주소) 중 두 가지만 정답
- ③ 시(도), 구(시, 군), 동(읍, 군, 면), 번지(세부주소) 중 세 가지만 정답
- ④ 시(도), 구(시, 군), 동(읍, 군, 면), 번지(세부주소) 중 네 가지 모두 정답
- ⑤ 네 가지 모두 오답(주소를 하나도 알지 못함)

C406. 지금부터 단어3개를 불러드립니다. 모두 들으시고 나서 그대로 외워서 저에게 말해주세요.

- ① 순서와 상관없이 세 단어 중 한 단어만 정답
- ② 순서와 상관없이 세 단어 중 두 단어만 정답
- ③ 순서와 상관없이 세 단어 중 세 단어 모두 정답
- ⑤ 세 단어 모두 외우지 못함

C407. 제가 조금 전 불러 드렸던 단어 세 개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외워 보시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뽀셈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되지요?

C408. 그러면 거기서 7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C409. 그러면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C410. 그러면 거기서 또7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C411. 마지막으로 그림 거기서 7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C412. 제가 조금 전에 외우고 계시라고 했던 단어 3개 기억나세요? 모두 말씀해 주세요. 무엇 무엇이었지요?

- ① 순서와 상관없이 세 단어 중 한 단어만 정답
- ② 순서와 상관없이 세 단어 중 두 단어만 정답
- ③ 순서와 상관없이 세 단어 중 세 단어 모두 정답
- ⑤ 세 단어 모두 외우지 못함

C413. 이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정답
- ⑤ 오답

C414. 이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정답
- ⑤ 오답

C415. 이번에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① 정답
- ⑤ 오답

C416. 지금부터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대로 따라 해 주세요. 제가 이 종이를 드리면 종이를 뒤집으신 다음, 반으로 접어서, 다시 저에게 주세요.

- ① 종이를 뒤집기, 반으로 접기, 건네주기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수행
- ② 종이를 뒤집기, 반으로 접기, 건네주기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수행

- ③ 종이를 뒤집기, 반으로 접기, 건네주기 세 가지 중 세 가지 모두 수행
- ⑤ 세 가지 동작 모두 수행 못함

C417.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문장을 [응답자 성명]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쓰인 대로 행동을 해보세요.

- ① 읽고, 눈감기 중 한 가지만 수행
- ③ 읽고, 눈감기 모두 수행
- ⑤ 두 가지 모두 수행 못함

C418. 여기에 오늘 기분이나 날씨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 ① 쓰기 수행
- ⑤ 수행하지 못 함

C419. 여기 그림이 보이시지요? 이 그림과 똑같이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 ① 그리기 수행
- ⑤ 수행하지 못함

2. 독립변수: 사별

A011. [응답자 성명]께서는 지난 기본조사 당시 [혼인상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예 → A013
- ⑤ 아니오

A012. 아니라면, 그 당시의 정확한 혼인상태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혼인 중
- ② 별거
- ③ 이혼
- ④ 사별 또는 실종(이산가족)
- ⑤ 결혼한 적 없음

3. 조절변수: 사회적 상호작용

1) 참여 사회활동 개수

A033. [응답자 성명]님께서서는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복수응답선택)

- ① 종교모임 → A035
- ②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 A035
- ③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노인대학 등) → A035
- ④ 동창회/향우회/종친회 → A035
- ⑤ 자원봉사 → A035
- ⑥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 A035
- ⑦ 기타
- ⑧ 없음 → A036
- ⑨ 모르겠음 → A036
- ⑩ 응답거부 → A036

2) 사회활동 참여빈도

A035. [A033에서 선택한 번호] 그 활동에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
- ② 일주일에 한번 정도
- ③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 ⑤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 ⑥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 ⑦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3~4개월에 1번)
- ⑧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 (2개월에 한번 정도)
- ⑨ 일 년에 거의 활동하지 않음
- ⑩ 거의 활동하지 않음

3) 자녀 접촉빈도

Ba019. [자녀 이름]님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얼굴을 보십니까?)

-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③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 ⑤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 ⑥ 일년에 한두 번 정도
- ⑦ 일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한 번)
- ⑧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 ⑨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 ⑩ 만나지 않음

Ba020. [자녀 이름]님과는 서로 전화, 문자(모바일 메신저 포함) 또는 전자 메일(e-mail) 등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십니까?

-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③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 ⑤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 ⑥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 ⑦ 일 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한 번)
- ⑧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 ⑨ 일 년에 거의 연락 안 함
- ⑩ 연락하며 지내지 않음

4) 가족 이외 인간관계 접촉빈도

A032. [응답자 성명]님과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 ② 일주일에 한번 정도
- ③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④ 한 달에 한번 정도
- ⑤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 ⑥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 ⑦ 일 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1번)
- ⑧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번 정도)
- ⑨ 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
- ⑩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4. 통제변수

1) 인구사회학적 변수

(1) 성별

CV003. 선생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⑤ 여자

(2) 연령

A001. [응답자 성명]께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음력/양력] 기준) 출생이 맞습니까?

- ① 예
- ⑤ 아니오

A002. 아니라면, 정확한 날짜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_____일

A003. [응답자 성명]께서 말씀해주신 생신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 ① 양력
- ⑤ 음력

A001_check. ___님의 한국 나이: 응답자의 한국 나이(2014-생년+1)

- ① 확인

(3) 학력

A004. _____님께서는 지난 조사 당시 학교를 [학력] [졸업상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예
- ⑤ 아니오

A005. 아니라면, 정확한 학력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무학(문자해독 불가)
- ② 무학(문자해독 가능)
- ③ 초등학교(보통학교)
- ④ 중학교(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
- ⑤ 고등학교(대입검정고시)
- ⑥ 전문대학(사범학교)
- ⑦ 대학교
- ⑧ 대학원 석사
- ⑨ 대학원 박사
- ⑩ 기타
- ⑪ 모르겠음
- ⑫ 응답거부

A006. 기타로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A007. 다니신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중퇴하셨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마치지 않으셨어도 검정고시로 자격취득을 하셨습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졸업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 ① 재학
- ② 졸업
- ③ 중퇴
- ④ 수료
- ⑤ 검정고시 자격취득

A008. 지난 기본조사일(____년__월 __일) 이후 정규학력(검정고시 합격 포함)을 더 취득하셨습니까?

- ① 예
- ⑤ 아니오

A009. 취득하신 정규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⑥ 전문대학
- ⑦ 대학교
- ⑧ 대학원 석사
- ⑨ 대학원 박사
- ⑨7 기타
- ⑨8 모르겠음
- ⑨9 응답거부

A010. 기타로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소득

E147. 작년 한 해(2013년) [응답자 성명]님을 포함해서 함께 사시는 가구원의 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소득과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만원)

2) 신체적·정신적 건강변수

(1) 일상생활행동(ADL)

C201. “옷 갈아입기”옷을 꺼내서 단추, 지퍼를 올리기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02.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03. “목욕 또는 샤워하기(혼자 등을 못 미는 것은 상관없음).”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04.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포크나 다른 도구 이용도 상관없음).”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05. “이부자리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도구를 사용해서 일어나도 상
관없음).”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
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06. “화장실 이용하기(실내용 변기 이용 무관, 옷을 벗고 용변후 처리까
지를 말함).”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

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07.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카데터(도관), 장루를 본인이 도움 없이 사용해도 상관없음).”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2)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C208. “몸단장 하기 (머리 빗기, 손발톱깎기, 화장(여자), 면도(남자) 포함)”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09. 일상적으로 집에서 하는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등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0. 식사준비를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식사준비란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1. “빨래하기” 즉 손빨래 또는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한 후 빨래를 널고 말리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2.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외출”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3. 버스나 전철, 택시 혹은 승용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4. “물건사기” 즉, 사야 할 물건을 결정하시고, 돈을 지불하시고 거스름돈을 받으시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5. “금전관리” 작은 용돈관리 및 통장관리 그 밖에 재산관리를 하시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6. 전화를 거시고 받으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C217. “약 챙겨먹기” 즉, 약을 드신다면 제시기에 정해진 양의 약을 챙겨
잡수시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① 도움 필요 없음
- ③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 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3) 우울(CES-D)

C149.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0.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프셨습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1.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2.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셨습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3.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4.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5.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6.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7.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C158.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bereavement and cognitive function in middle and old age :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nteraction

Moon, Nar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and the so-called age of longevity of the age of 100 has been reached. And now, the qualitative aspect of how to live i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quantitative aspect of long life.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the bereaved population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Bereavement is an inevitable life event that middle and old ages are suffering, and it causes a great change in the life of the bereaved person. The adaptation to the lasting life and maintaining well-being of the bereaved person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qualitative aspect of life.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researches on the old

aged population are actively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interests in bereavement and the needs for research are also increasing.

A decisive cognitive function is considered to be a key requirement for successful aging and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It was found that bereave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such as, depression and stress. In order to protect cognitive functioning,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absence of the spouse who was the subject of major social interaction, by replacing it with other social interactions.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bereave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ereavement and cognitive function in Korea. In the study of social interaction,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mechanism of social interaction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compare cognitive functions of bereaved people and married people to investigate its influence and (2) to examine Whether social interac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ereavement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addition, this study looks for new intervention points to prevent aggravation of cognitive functioning of the bereaved people, and examines whether differences exist of social interactions' moderating effects by their type - (1) the number of social activities, (2)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3)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and (4)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non-family relationships.

The quantitative analysis data were used in the 5th (2014) basic survey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the results and focus on the effects of bereavement, other marital status-divorce and separation,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53 to 97 years old 2,117 person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622 of them are bereaved and 1,495 of them were still married.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rough the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data,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middle and old aged bereaved people was lower than that of married people while controlli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 cognitive function. The number of participating social activities,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the frequency of child contac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otecting the cognitive function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bereavement,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non-family relationshi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secondary data analysis and conducts qualitative research using FGI to derive rich research results and to interpret deep research results. The FGI interview was conducted for 1 hour and 30 minutes. Six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and 2 middle-aged people 65 years or younger living in ○○ city in Chungcheongbuk-do were interviewed.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 cognitive functions such as the sudden lack of memory or lack of reading due to the bereavement were suddenly appeared after bereavement. Also, participants reported meeting diverse group of people and enjoying social activities elevated their mood (or energized them) and forget about the loss.

And frequent contact with their children makes them feel grateful that they are cared by their children.

There were some disagreement about frequent contact with non-family members between participants. Some of them stated meeting friends.—Relieves stress and receives feeling of comfort and sympath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

First, there is a need for a closer look and attention at the effects of bereavement on the bereaved people as well as their cognitive functions. Cognitive function of a bereaved person is not merely a naturally occurring life event as we are aging, but social interests and approaches are need about various secondary problems that bereaved people could experience after bereavement of spouse.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social interaction programs which could protect cognitive functions of bereaved people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bereavement. For example, the greater the number of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the more cognitive function was protected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bereavement. Based on thi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various kinds of social activities that bereaved people can participate based on the needs of the parties. In addition, by educating children of bereaved people about bereavement, it could emphasize the constant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the bereaved parent do supporting roles in the bereaved parent's continuous life. Third, most of the programs for the bereaved people are mainly provided by hospital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but those programs should be actively and universally spread to the local community. Also, institutional support and infrastructure by

National dimension should be prepared to enable more bereaved people to use universally and cope with.

keywords: Cognitive function, Bereavement, Social interaction, Resilience model